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구원의 증거

성경: 로마서 8장 31-39절

Tag:

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1-39)

로마서 8장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한 장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시다. 이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요구, 즉 악한 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조

건이 갖추어지는데, 오직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까지는 해도, 쉽게 잊어버리고, 형편이 나빠지면 포기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도 없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구원받는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정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성령께서 주시므로, 세상의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또 어려울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뚫을 길을 열어주신다.

성령을 받았으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신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기도하라. 소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심지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또 우리는 무지해서 죄에 대한 인식도 안개속을 걷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 위험한 순간이다. 험준한 순간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므로 결국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여 악한길을 떠나게 하신다.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 이 일;구원에 관한 것.
- 구원은 예수를 믿는 날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신령한 복.
- 우리는 죄로부터, 세속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무지로부터,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함으로부터 구원받는다.
-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는 것은 본인이 잘 느낀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확신이 없다.
- 뭔가 찢힌 간증거리, 죽음에서 건짐받은 확실한 사건, 전광석화와 같은 순간적인 깨달음이 없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엄마품에 안긴 아기가 평온한 것은 아기가 엄마를 믿고 신뢰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때문이 아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았기 때문이다. 교회생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이다. 내가 교회생활에서 안식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이다.
- 31절 말씀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나의 믿음, 나의 결단, 나의 감동, 나의 경험등이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 주신 분이시다.
- 그러니 다른 것을 내어 주시기를 아까워 하시겠느냐?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 가장 적절할 때 주시려고 하신다. 부르짖을 때 주시려고 하신다.
- 평상시에는 기본적인 것을 주시고, 노력하면 더 주시고, 부르짖으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오래 기다리는 자에게는 가장 적절할 때 주신다.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34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순간 순간 구원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구원이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앞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구원받은 삶이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다.

오늘도 섭리하신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우치신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속에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신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권능을 뿜풀고 계신다.

35절 말씀부터는 환난 중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고백이 나온다.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왜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니, 성령께서 능히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다.

-우리는 양과 같으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

힘에 들어있는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한다.

특히 36절 말씀은 시편 44편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44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게 되어 이방사람들에게 잡혀
가고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들은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
상숭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고백이다.

바울도 복음전파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아마도
시편에 나오는 상황에 공감이 갔을 것이다.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되도록이면 고난은 닦치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난은 인생 중에 흔하게 다가온다.

-미리 알았더라면 대비했을 것을, 알지 못하여 대비하지 못하는 것
도 많고, 미리 알았더라도 여력이 되지 않아 대비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기는 힘은 율법인가 사랑인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고난이 임할 것인데, 재빨리 도망하라고 하셨
다. 즉 부러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뜻이다.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죽
임을 당하기 보다는 재빨리 도망쳐야 한다. 그것이 지혜다.

-그러나 도망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 그때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
랑하는 것으로 고난을 이겨야 한다.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
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나와 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다. 이 사랑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완성시킨다. 그것도 곧 구원의 증거가 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제자훈련의 성격

성경: 마태복음 28장 18-20절

Tag: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 예수;

.예수님은 가장 정의롭게 이 권세를 사용하신다.

.예수님은 가장 선하게 이 권세를 사용하신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이 땅에서 권세의 능력을 사용하셨다.

*제자는 이런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그 권세의 정의로움, 선함, 능력을 잘 배워야 한다.

-권세에 대한 긍정적인 깨우침이 필요함.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잊지 말고 믿어야 함. 순간 순간 인정하고 주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예수님께서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나 대깨문들은 부러 깨닫지 않으려 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에게 선교하라고 해석함.

-한국에서만 그것도 반쪽만, 선교에 효과를 봄.

-정치적으로 선교를 받아들이고 활용했기 때문.

- 유교율법주의와 세대주의 선교론이 한국에서 절묘하게 어울림.
- 그러나 이제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
- 유능한 정치인을 발굴하고 제자 삼는 것이 급선무.
- 깨어있는 지식인이 필요함. 그들 중에서 외국에 가서 문물을 익히며 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함. 그가 돌아가서 조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고, 기독교선진국이 그를 돕는 것이 필요함.

*세례를 베풀라;정식 교인이 되게 하라. 분명한 신앙고백을 듣고 세례를 베풀라.

-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기초절차.
- 교리는 진리의 핵심.
- 교리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짐. 진짜 신성을 접촉하는 것.
-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를 회복하게 됨. (나의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 예수님의 말씀
- 예수님의 사역
- 예수님의 태도